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비교 -

Effects of Youth Voluntary Service on Sense of Citizenship, Positive Self-perception, and Peer Relation - The Comparison betwee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조호운·조성환·김영희*

충북이동가족상담연구소,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Jo Ho Woon·Jo Soung Hwan·Kim Yeong Hee

Chung-buk Child-Family Counselling Institute,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youth voluntary on sense of citizenship, positive self-perception, and peer relations, which procedures was conducted by being comparison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ones. This study also use the data given by 2st of the 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SELS), which subjects were 7,593 youths(3,566 in middles school students and 4,027 in high school one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for youth's peer relations was sense of citizenship both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 which indicates not only that it is encouraged by sense of citizenship but also that developing and leading the sense of citizenship for youth should be given by the school welfare policy. Positive self-perception in middle school youth influenced the second effect on their peer relations, but high school student's peer relation was impacted by the voluntary service into a secondary effect.

Keywords: youth voluntary service, sense of citizenship, positive self-perception, peer relations

I. 서론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의 영향력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기이다(Jo & Kim, 2011). 특히 우리나라 청

소년들은 가정 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맺는 또래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성인기의 삶을 좌지우지할 만큼 청소년의 전반적 발달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Bronfenbrenner(1979)가 청소년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친구관계로 밝힌 것으로 그 중요성이

[†] 본 논문은 2012년 2월 제1회 서울교육중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Kim, Yeong Hee

Tel : 043-261-3147

Email : enjoy@chungbuk.ac.kr

이미 입증되었다. 청소년들은 부모와 공유할 수 없는 생각, 고민, 그리고 가치관 등을 또래와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다양한 영향을 친구로부터 받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각종 정보와 놀이문화를 공유하고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기도 하고 (Do, Lee, Kim, Choe, & Lee, 2005),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가치관을 형성하고 행동 준거의 틀을 갖게 된다. 선행연구들은 개인이 처한 문화나 환경에 따라 또래관계의 양상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지만 또래관계의 영향력은 청소년기를 넘어서서 성인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하였다(Jang, 2005; Lee, 2011; Lee, 2007). 결국 청소년 시기의 또래관계는 청소년 개인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을 만큼 청소년 발달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청소년기는 발달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또래관계에서 얻어진 가치관은 고스란히 청소년 개인의 전반적 삶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Han(2006)은 긍정적 또래관계가 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지나 정서적 안정감과 같은 심리 내적 측면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도덕성 및 인지 능력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Yu, Han, and Kim(2002)은 청소년이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지 못할수록 공격성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또래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또래로부터 얻는 인기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하고 지도력을 갖게 하여 학교적응도 잘 하지만 또래와의 관계가 부정적이거나 부적절하면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고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Crik, 1999; Lambert, 1999; Lee, 1999). 실제 경험적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의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Lausen, Furman, and Mooney(2006)는 긍정적으로 형성된 또래관계가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어지지만 부정적 또래관계는 정서적 문제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또래관계가 긍정적이지 못할수록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도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이 보다 긍정적 또래관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하나의 방안으로 청소년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들은 크게 가족 요인과 청소년 개인적 요인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먼저 가족요인으로, 부모 간 갈등,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기능을 들 수 있고 (Ahn & Lee, 2009; Minuchin, 1985; Jo, 2001; Smith

& Sharp, 1994; Yu, 2005), 청소년 개인적 요인으로는 공격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성격, 우울, 낮은 학업성취(Egan & Perry, 1998; Lee, 2011; Jung, 2006; Lee & Lee, 2004; Olweus, 1993)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다양한데,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주 5일 수업제가 시행되면서 청소년들이 비교적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어떻게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동안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어 왔지만 현 시점에서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영향력을 살펴본다는 것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 발달에 주는 이로움을 이미 증명된 바 있다. Lee와 Lee(2010)에 따르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기에 갖추어야 할 건강한 자질을 갖추어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점쳐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발달적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해가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이 때 맺어진 자기 가치관으로 사회와 본격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된다. 선행연구들은 자원봉사활동은 자아관의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는 청소년들에게 삶의 의미 기반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뿐 아니라 개인적 측면인 자기지각이나 진로, 그리고 사회적 측면으로서의 긍정적 대인관계, 사회적 참여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Choe & Jung, 2010; Kim, 2009; Kim, 2007). Kwon(2004)의 연구에서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능력 차원으로 강조한 도덕성 발달에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유력하게 예측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은 특히 청소년의 대인관계 능력인 또래관계에도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과 대인관계 차원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를 수행한 Moon과 Moon(2009), 그리고 Gomez와 Gunderson(2003)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이후 친구와 더 잘 협력하고 더 원만한 친구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들(Cconrad & Hedin, 1989; Debats, Drost, & Hasen, 1995; Hammilton & Fenzel, 1998; Markus, Howard, & King, 1993; Sundeen & Raskoff, 2000)에서도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비 참여에 비해 청소년들의 사

회적 책임감 향상과 친구에 대한 이해, 친구관계 기술 및 의사소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직접 경험하면서 공감과 이타적 능력을 기르며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기에 맺어가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입증된 결과이다.

시민의식은 ‘참여와 자원봉사 및 모든 시민을 위해서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공동체 개선을 지향하는 것’으로 Ross(2007)는 정의하였다. Youniss와 Yates(1999)가 밝힌 것처럼 청소년이 경험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시민의식을 기르는데 최적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Hong과 Nam(2004)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참여활동은 청소년 자신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따른 다양한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민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Kim(2001)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체험활동을 많이 할수록 시민의식이 높아짐을 보고하였고, Albanesi, Cicobnani, and Zani(2007)도 청소년의 경험하는 다양한 참여활동이 공동체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음을 증명해 주었다. 이외 다른 연구들도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만큼 시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Chavis & Wandersman, 1990; Eun, 2002; Kang, 2001; Kim, 2007; Kwak & Moon, 2010; Icholv, 1990; Lee & Lee, 2010).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사회의 한 일원임을 자연스럽게 자각하게 되고,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감이 특히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상 더 빨리 흡수되는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어진 시민의식은 청소년 발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청소년이 맺는 대인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자원봉사활동으로 발달된 시민의식이 대인관계 기술과 이타성으로 대변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공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인관계가 증진되는 효과가 있음을 말하였다(Hu & Jung, 2008; Yang, 1988). 비록 사이버 상이지만 참여(participation)와 연대(solidarity)를 통해 얻어지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관계를 검증한 Jo와 Kim(2006)은 훈련된 공동체의식은 특히 대인관계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친구관계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최근 밝혀진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할 때 초기에는 자기중심으로 상대를 고르는 측면이 있었다면 집단

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이후에는 타인 중심으로의 변화가 생기면서 교우관계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Roh, 2008). 또한 Cohn(2008)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체득하게 된 공동체적 의식이 자기 자신을 보다 긍정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청소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은 또래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키워진 청소년의 시민의식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발달된 시민의식이 자기 자신을 긍정화하는 효과를 가지면서 또래관계가 간접적으로 향상되는 구조적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Harter(1985, 1988)는 자기를 지각하는 개념이 일반적으로는 연령 증가와 정비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느냐는 확장 영역인 또래관계, 앞으로의 진로 및 직업 선택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몇몇 선행연구들(Jo, 1997; Klein, 1995)은 청소년기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던 아동기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자기 외적 요인에서 자기 지각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고, 청소년 시기에 맺어진 자기 지각이 긍정적이고 건강할수록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며, 대인관계도 원만하지만 자기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비합리적이고 소극적이며, 타인을 불신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인과적 경로를 말하기도 하였다. Kim(1987)는 건강한 자가지각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고, Yu(2005)는 대학생들의 마음과 정신을 가장 혼돈하게 만드는 요인이 긍정적이지 못한 자가지각 때문임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주장하였다. 이는 최근에 보고한 연구(Choe, 2010)를 통해 입증되기도 하였다. 청소년이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각할수록 또래관계가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청소년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자기를 지각하는 자체가 또래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이 자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몇몇 연구들은 청소년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영향력을 입증해 주었다. Kim(2009)은 청소년이 갖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 리더십 향상 및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밝혔고, Oh(2007)도 청소년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널리 알려진 자아감을 갖는데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피력 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은 이타성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느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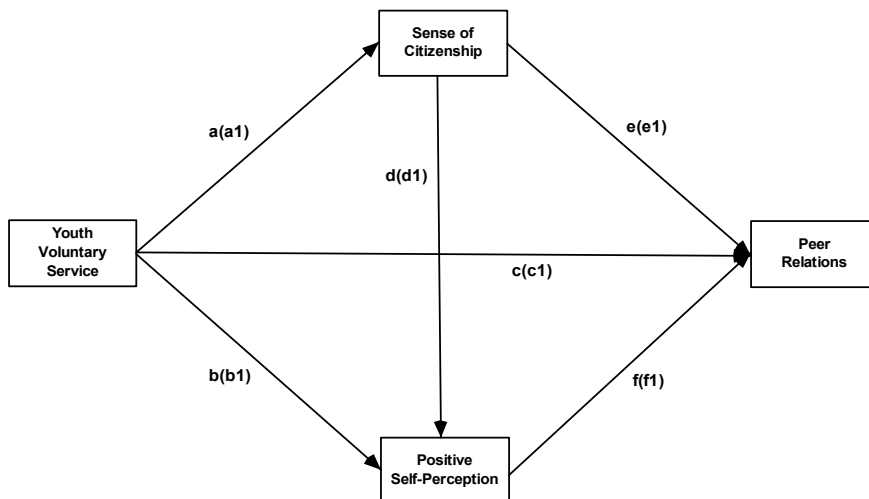
지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다 (Kim, 2009).

한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와 과생되는 영향이 발달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oon과 Moon(2009),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008)는 일제히 중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비해 고등학생의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Hu와 Jung(2010)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의식을 검증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중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은 진로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비록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처해진 발달 환경과 자가지각 및 심리구조에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따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타당한 분석방법임을 시사해주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분명한 발달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으로 학습되는 시민의식과 자가지치관, 그리고 행복감 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Dong, Jeon, and Kim(2012)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성취압력과 입시부담감이 공동체의식을 저하시켰다고 보고하면서 팽배한 입시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대상이 고등학생만은 아니기 때문에 중학생도 동시에 분석하여 공동체 의식이 청소년 환경 변인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

는지를 구분해야 청소년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더욱이 Gross와 Dynneson(1991)도 시민의식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및 학교, 또는 사회의 교육을 통해 학습된다고 밝히면서 학습된 시민의식이 성인기 역할에도 기여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시민교육을 함양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를 중학교시기로 보고 측정 자체를 발달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이와 같은 근거로 본 연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따로 구분하여 각 경로를 검증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또래관계에 이르는 경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또래관계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의식을 더욱 함양케 하며 청소년기 자기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이러한 긍정적 인과 과정이 결국에 청소년 시기에 매우 중요한 또래관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 연구는 내다본다. 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해 봄으로써 본 연구는 청소년들 간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며,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가 세워본 연구문제와 모형은 다음과 같다.



*(high school students)

[Figure 1] Theoretical model of this study

1. 자원봉사활동이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가지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자원봉사활동이 고등학생의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가지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가지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계수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 2010년부터 서울시 소재 초, 중, 고등학생 16,0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교육종단패널연구'에서 제공한 2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서울교육종단패널연구'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변화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7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4학년 5,059명, 중학교 1학년 4,544명, 고등학교 1학년 6,456명의 학생들을 패널로 하여 수행된 조사연구 사업이다. 각 패널이 해당 학교급을 졸업하는 시점인 향후 3년에서 초등학교 패널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018년 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서울교육종단연구의 목적은 서울 지역 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변화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각 조사 영역으로 고교체제, 교육격차, 사교육 및방과후학교, 학업성취, 교수활동, 진로·적성, 학부모 참여, 정의적 특성 등의 주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중학생 3,570명과 고등학생 4,002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주어진 패널 자료에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대한 측정이 없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서울교육종단패널 중 2011년에 조사된 제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각 척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서 서울교육종단패널에서 제시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4문항으로 이루어졌고, '봉사활동은 시간 낭비다',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보람을 느낀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 '어른이 되어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문항의 신뢰도는 중학생 .834, 고등학생 .859로 나타났다.

2) 긍정적 자가지각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지각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서울교육종단패널에서 제시한 '청소년의 자아 개념'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교육종단패널에서 자아개념으로 명명한 변인 명을 '긍정적 자가지각'으로 바꾸었다. 일반적으로 자아개념은 자아지각과 자가지각으로 혼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구성된 문항 자체가 청소년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지각하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수의 명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문항은 총 5문항으로 이루어졌고,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항의 신뢰도는 중학생 .923, 고등학생 .885로 나타났다.

3) 시민의식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서울교육종단패널에서 제시한 '청소년의 시민의식'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졌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타면 자리를 양보한다',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잘 도와준다', '학교공부가 뒤쳐진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기위해 노력한다', '우리반, 우리 학교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갖는 시민의식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 문항의 신뢰도는 중학생 .870, 고등학생 .834로 나타났다.

4) 또래관계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서울교육중단패널에서 제시한 ‘청소년의 또래관계’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4문항으로 이루어졌고,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혼자 있기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친구들과 서로 싸우더라도 금방 화해 한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준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또래관계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문항의 신뢰도는 중학생 .734, 고등학생 .73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Cronbach's α 값의 추정치를 통해 척도의 신뢰도를 구하였고, 각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는데, 이러한 기초적 분석은 SPSS 12.0 Program을 사용하였다.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세워본 연구모형의 검증에 앞서 요인분석을 통해 구축된 측정변인들만을 가지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제시된 변인들의 하위요인을 나눌 수 없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서 잠재변인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기존의 t-test 검증방식이 아닌 측정오차를 따로 통제하여 보다 실질적인 차이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각 경로

계수에 등가제약을 설정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은 AMOS 7.0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AMOS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는데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이 사용되지만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의 결측치(missing values)로 인해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FIML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였거나,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 정확하게 미지수 추정을 하는데 용이하다(Kim-Kim-Hong, 2007). FIML 방식을 이용하면 결측치가 있는 자료라 하더라도 분석이 가능하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χ^2 검정과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여러 적합도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는데, 이 지수들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Hong, 2000). TLI와 CFI의 경우 .90 값 이상일 때, RMSEA는 .05 이하일 때 일반적으로 그 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Ⅲ. 연구 결과

1.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예측된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구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의 방향성은 예측된 방향으로 나타났고 유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of variables

*(high school students)
N=3,570(4,002)

| Variables | 1 | 2 | 3 | 4 |
|-----------------------------|----------------------|----------------------|----------------------|---|
| 1. Youth Voluntary Service | 1 | | | |
| 2. Sense of Citizenship | .458*** (.436***) | 1 | | |
| 3. Positive Self-Perception | .286*** (.294***) | .502*** (.466***) | 1 | |
| 4. Peer Relationship | .220*** (.242***) | .378*** (.413***) | .375*** (.378***) | 1 |

*** $p < .001$

의한 상관은 중학생의 경우 .220에서 .502의 범위를 보였고, 고등학생은 .242에서 .466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시민의식, 긍정적 자기지각, 또래관계 모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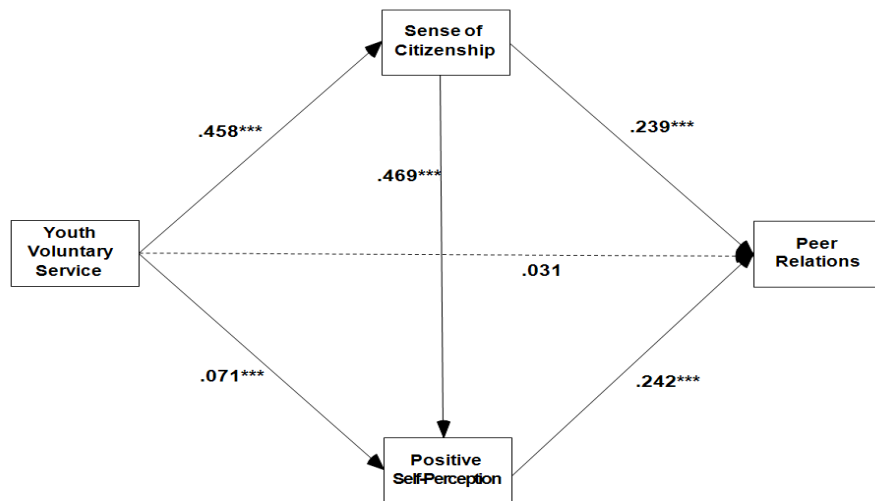
2. 자원봉사활동이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이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세워본 연구모형 검증에 대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고, 경로계수의 값은 <Table 3>에서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모형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χ^2 의 유의확률 $>.05$, TLI $>.90$ -1사이, CFI $>.90$ -1사이, RMSEA $<.08$ 이다(Bae, 2009; Hong, 2000).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χ^2 검정을 기준으로 본 연구모형을 판단해 본다면 적합하지 않지만($\chi^2=5.864$, $p<.05$), χ^2 검정은 사례수가 많아질수록 커지고 작아질수록 낮아지게 반응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례 수와 모형의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TLI, CFI, RMSEA로 모형의 적합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TLI=.982, CFI=.998로 나타나 적합하였고, RMSEA도 .037로 나타나 모형이 자료를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므로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Table 2> Fit index of middle school students model

| $\chi^2/(df)/p$ | TLI | CFI | RMSEA |
|-----------------|------|------|-------|
| 5.864/(1)/.015 | .982 | .998 | .037 |



N=3,570

—————> Significant Path Coefficient
 - - - - -> Non-significant Path Coefficient

*** $P<.001$.

[Figure 2] Path model of middle school students

〈Table 3〉 Regression weights of middle school students

| Path | Regression Weights |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 S.E | C.R |
|---|--------------------|---------------------------------|------|-----------|
| Voluntary Service → Sense of Citizenship | .335 | .458 | .012 | 30.842*** |
| Voluntary Service → Positive Self-Perception | .072 | .071 | .016 | 4.390*** |
| Voluntary Service → Peer Relationship | .038 | .031 | .011 | 1.756 |
| Sense of Citizenship → Positive Self-Perception | .610 | .469 | .021 | 28.950*** |
| Sense of Citizenship → Peer Relationship | .248 | .255 | .017 | 14.697*** |
| Positive Self-Perception → Peer Relationship | .184 | .246 | .013 | 14.180*** |

*** $P < .001$

〈Table 4〉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 Independence Variables | Dependence Variables | Direct Effects | Indirect Effects | Total Effects |
|--------------------------|--------------------------|----------------|------------------|---------------|
| Voluntary Service | Peer Relationship | - | .187 | .187 |
| | Sense of Citizenship | .458 | - | .458 |
| | Positive Self-Perception | .071 | .215 | .286 |
| Sense of Citizenship | Positive Self-Perception | .469 | - | .469 |
| | Peer Relationship | .255 | .116 | .371 |
| Positive Self-Perception | Peer Relationship | .246 | - | .24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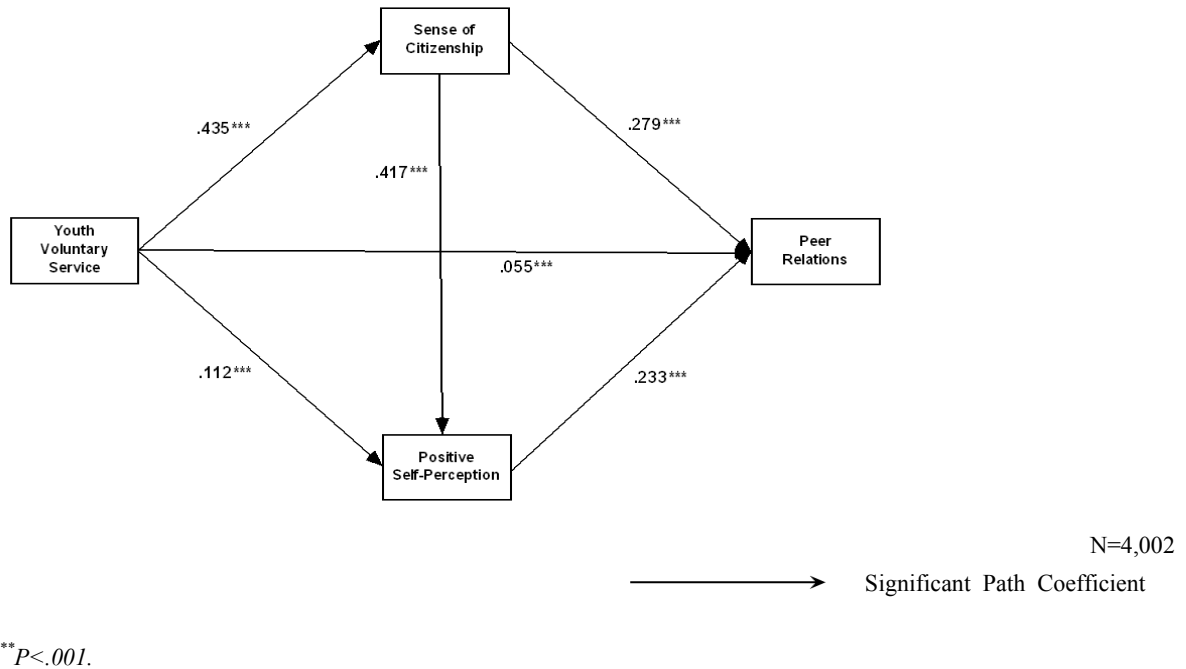
중학생의 경로모형에 대한 직·간접 및 총 효과 분해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중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은 시민의식에 .458, 긍정적 자기지각에 .071의 유효한 직접 효과를 주었고, 간접경로로, 시민의식 또는 긍정적 자기지각의 각각의 경로를 통해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의 경로로 또래관계 .187의 간접효과를 미쳤다. 또한 시민의식을 통해 긍정적 자기지각에 .215의 간접효과를 주었다. 하지만 또래관계에 대한 .031의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설명하자면, 중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은 비록 또래관계를 직접적으로 높이지 못하였지만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을 직접적으로

높였고, 이 두 변인이 상호작용하거나 각각의 경로로 또래관계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또한 중학생의 시민의식은 긍정적 자기지각에 .469, 또래관계에 .255의 직접효과를 미쳤고, 긍정적 자기지각을 통해 또래관계에 .116의 간접효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중학생의 시민의식은 긍정적 자기지각과 또래관계를 직접적으로 높였을 뿐 아니라 높아진 긍정적 자기지각이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긍정적 자기지각은 또래관계에 .246의 영향을 주어 중학생이 자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또래관계 또한 향상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Table 5> Fit index of high school students model

| $\chi^2/(df)/p$ | TLI | CFI | RMSEA |
|-----------------|------|------|-------|
| 17.282/(1)/.001 | .946 | .995 | .071 |



[Figure 3] Path model of high school students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학생의 봉사활동은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나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을 높이면서 또래관계가 증진되는 경로를 보여주었다.

3. 자원봉사활동이 고등학생의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이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세워본 연구모형 검증에 대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고, 경로계수의 값은 <Table 6>에서 제시되었다. 고등학생의 경로모형의 적합도는 χ^2 값이 17.282로 나타나 다소 부적합하게 나타났지만 사례수 (4,002)를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수용할만한 수치이다.

다른 적합도들 또한 TLI .946, CFI .995, RMSEA .071로 나타났다. 모형이 자료를 대체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로모형에 대한 작·간접 및 총 효과 분해는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은 또래관계에 .055, 시민의식에 .470, 긍정적 자기지각에 .110의 직접효과를 주었고, 간접경로로,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만을 통해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의 경로로 또래관계 .219의 간접효과를 미쳤다. 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이 또래관계에 주었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효과는 중학생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이다. 즉, 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은 또래관계, 시민의식, 긍정적 자기지각을 직접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이 두 변인이 상호작용하거나 각각의 경로로 또래관계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시민의식은 긍정적 자기지각에 .555, 또래관계에 .364

의 직접효과를 주었고, 긍정적 자기지각을 통해 또래관계에 .102의 간접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고등학생이 갖는 시민의식은 긍정적 자기지각과 또래관계를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높아진 긍정적 자기지각을 매개로 하여 또래관계를 높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고등학생의 긍정적 자기지각은 또래관계에 .183의 직접효과를 미침으로써 자기에 대한 고등학생의 긍정적 지각이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은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생의 또래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인은 중학생의 경우와 같이 시민의식(.466)이었고, 이 변인은 직·간접 모두의 영향을 주었다. 중학생과는 대조적으로 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292)이 또래관계를 시민의식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 나타났다.

4.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다집단 분석

〈Table 6〉 Regression Weights of High School Students

| Path | Regression Weights |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 S.E | C.R |
|---|--------------------|---------------------------------|------|-----------|
| Voluntary Service → Sense of Citizenship | .378 | .470 | .013 | 30.161*** |
| Voluntary Service → Peer Relationship | .057 | .055 | .013 | 4.292*** |
| Voluntary Service → Positive Self-Perception | .121 | .110 | .023 | 4.585*** |
| Sense of Citizenship → Positive Self-Perception | .743 | .555 | .020 | 37.825*** |
| Sense of Citizenship → Peer Relationship | .356 | .364 | .019 | 18.499*** |
| Positive Self-Perception → Peer Relationship | .134 | .183 | .013 | 4.292*** |

*** $p < .001$

〈Table 7〉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 Independence Variables | Dependence Variables | Direct Effects | Indirect Effects | Total Effects |
|--------------------------|--------------------------|----------------|------------------|---------------|
| Voluntary Service | Peer Relationship | .073 | .219 | .292 |
| | Sense of Citizenship | .470 | - | .470 |
| | Positive Self-Perception | .110 | .260 | .370 |
| Sense of Citizenship | Positive Self-Perception | .555 | - | .555 |
| | Peer Relationship | .364 | .102 | .466 |
| Positive Self-Perception | Peer Relationship | .183 | - | .183 |

<Table 8> Path coefficients comparison betwee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non-equivalence constrain model

| Equivalenced path | DF | χ^2 | TLI |
|---|----|----------|------|
| Voluntary Service → Sense of Citizenship | 1 | 11.897** | .037 |
| Voluntary Service → Peer Relationship | 1 | 5.003* | .016 |
| Voluntary Service → Positive Self-Perception | 1 | .158 | .000 |
| Sense of Citizenship → Positive Self-Perception | 1 | 1.292 | .002 |
| Sense of Citizenship → Peer Relationship | 1 | 5.121* | .018 |
| Positive Self-Perception → Peer Relationship | 1 | .098 | .000 |

* $P < .05$, ** $P < .01$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 모형 내 존재하는 6개 모형 즉, 중학생은 a부터 f까지, 고등학생은 a1부터 f1까지의 경로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6개를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 이는 통해 각 경로계수의 실질적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는데 용이하다. <Table 8>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서 시민의식 간 경로(중, .458; 고, .435), 자원봉사활동에서 또래관계의 경로(중, .031; 고, .055), 시민의식에서 또래관계의 경로(중, .239; 고, .279)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경로계수에 차이를 보였다. 즉,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더 높았고, 자원봉사활동에서 또래관계의 경로와 시민의식에서 또래관계의 경로에서의 영향은 고등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발달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민감한 시기에 누구와 접촉하며 상호작용하는가는 청소년 개인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좀 더 확장된 대인관계 영역인 또래관계는 심리적 지지, 우울 및 학교 생활 부적응과 같은 청소년기 매우 중요한 생활 변인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자원봉사활동은 또래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을 높이는 특성 때문에 이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 중 하나가 또래관계 증진임을 시사해 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청소년기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과 이로 이어지는 시민의식 및 긍정적 자기지각의 매개효과를 탐색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및 상담 현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이 제공한 자료 중에서 평소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중학생 3,570명과 고등학생 4,002명을 대상으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와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경로계수의 영향력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검증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이 직접적으로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을 매개로 하여 또래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이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었다. 결국, 자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을 높이기 때문에 높아진 이 두 변인들이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데 대해서는 같았지만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에는 다소간에 차이를 보였다.

선행연구들(Kim, 1999; Lee, 2009; Moon & Moon, 2009)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을 말하면서 자기정체감, 시민의식, 자아존중감과 같은 변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Kim(2007)과 Kim(2005)도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면서 사회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증진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와 같이 최종 종속 변인으로 또래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발달 및 책임이라는 범주에 또래관계가 속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학생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이 또래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Hu와 Jung(2010)의 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의 사회적 관계인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과 또래관계를 검증한 Kim과 An(2012)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또래관계를 설명하지 못하였지만 자원봉사 활동 이후의 만족도는 또래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nrad와 Hedin(1982)도 어린 나이에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수록 가장 많이 발달하는 것은 도덕성과,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친구관계가 포함된 사회적 관계임을 말하였다.

선행연구들의 일관된 결과를 주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는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또래관계 및 부모 애착과 같은 변인들을 매개변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 이후에 종속 변인으로 영향을 준다는 가정으로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을 매개로 하는 최종 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타난 결과는 중학생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을 설명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으로만 또래관계를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 및 또래관계에 고루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래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에서는 또래관계와 시민의식, 그리고 자기의식 간 선행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종단적 모형을 통해 자기회귀 교차 지연과 같은 분석방법으로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또래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시민의식인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구분 없이 중요한 변인으로 대두되었다. 즉,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은 또래관계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됨을 본 연구는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얻어진 청소년들의 시민적 정체성이 대인관계 및 사회적 책임감을 더욱 증진시킨 것으로 보고한 Youniss와 Yates(1999)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Ko와 Nam(2011)은 청소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활동 중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이 친구관계의 증진에 가장 큰 효과 값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Kang, Palisano, Orin, Chiarello, King, and Polansky(2010)는 자원봉사활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또래관계 증진에 교화가 있는지를 밝혀냈다. 그들에 따르면 청소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활동이 길어질수록 공동체의식이 발달해가면서 심리적 안녕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은 주위 사람에 대한 배려심과 이타심이 발달함으로써 친구관계가 좋아졌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보다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이 시민의식을 갖게 하면서 이를 통해 발현되는 긍정적 또래관계의 효과성을 선행연구들도 입증하고 있듯이, 교육 차원에서 정규수업과정의 한 부분으로 채택한다면 장기적으로 청소년들 간의 또래관계가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이 갖는 시민의식은 청소년 개인의 영역 차원에서도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범사회적 차원에서도 긍정적 미래 사회의 확충과 사회적 비용의 감소 등과 같은 이로운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더 높았고, 자원봉사활동에서 또래

관계의 경로와 시민의식에서 또래관계의 경로에서의 영향은 고등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선행연구들이 검증해 본 바가 적은 실정이지만 발달 시기별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실태를 조사한 Hu와 Jung(2010)은 중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빈도가 고등학생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 전문화된 봉사활동 영역에서는 고등학교로 갈수록 더 높았지만 중학교 집단에서는 캠페인과 위문활동, 환경보존과 같은 영역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자원봉사의 효과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말해주었다. Hamilton과 Fenzel(1998)은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한 영향력 중에 연령이 어릴수록 자기를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한다거나 보다 건강한 사회적 의식을 갖는데 용이한데 반해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사회적 관계 차원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이 발달 단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결과로 어린 나이 때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다면 인지 및 지각 차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자원봉사활동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게 다양한 이로움을 준다. 인지와 의식 차원인 개인 변인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차원인 또래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중학생에게는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가지각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상급학년인 고등학생에게 자원봉사활동은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가지각을 높이면서 또래관계를 간접적으로 설명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근거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가지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도출하였는데 의의를 둔다.

후속연구를 위해 본 연구가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대해서는 검증해 볼 수 없었던 것은 본 연구가 갖는 분명한 한계점이다. 후속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는 성별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만 주로 시민의식, 공동체의식,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과 같은 변인들과 단편적인

관계만 살펴보고 있는 실정이어서 각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가 어떠한지를 파악해 보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통합적 모형을 설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 개인 변인과 환경적 변인에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갖는지를 검증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시민의식, 긍정적 자가지각, 또래관계

REFERENCE

- Ahn, S. Y. & Lee, H. S.(2009). The effects of individual psychology and family variables on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2), 163-176.
- Albanesi, C., Cicobnani, E., & Zani, B.(2007). Sense of Community, Civicengagement and social well-being in italian Adolescent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7, 387-406.
- Bae, B. R(200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17.0*. Seoul: Chungmram.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vis, D. M., & Wandersman, A.(1990) Sense of Community in the urban environment: A catalyst for particip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55-82.
- Choe, H. S.(2010). *The impact of impression formation to self-serving and self-modesty attribu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eer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Korea.
- Choe, H. S. & Jung, T. J.(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volunteer activities and leadership development: Based on research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Seongnam city.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10(1), 311-331.
- Cohn, S.(2008). Making objective facts from intimate relations: the case of neurosciences and its entanglements with volunteers. *History of Human*

- Science*, 21(4), 86-103.
- Conard, D., & Hedin, D.(1989). High school community service: A review of research and program. *Madison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20.
- Conrad, D. & Hedin, D.(1982). The impact of experiential education on adolescent development. *Child & Youth Service*, 4(3/4), 57-76.
- Crick, N. R.(1996). The role of over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Debats, D. L., Drost, J., & Hasen, P.(1995). Experiences of meaning in life: a combin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6, 359-375.
- Do, H S., Lee, H. S., Kim, S. H., Choe, M. K., & Lee, S. L.(2005).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eoul: Kyomunsa.
- Dong, Y. J., Jeon, M. A., & Kim, Y. H.(2012). Effects of achievement pressure and entrance-exam burden on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Moderating effect of parent's supporting.-,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9(2), 101-119.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 Psychology*, 34, 299-309.
- Eun, J. Y.(2002). *Reflection effects of adolescents' volunteer services on citize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Gomez, R. & Gunderson, M.(2003). Volunteer activity and the demands of work and family. *Relations industrial* 58(4), 573-619.
- Gross, R. E. & Dynneson, T. L. 1991. "The Educational Perspective". Social Science Perspective on Citizenship Education.
- Hamilton, S. F. & Fenzel, L. M.(1998). The impact of volunteer experience on adolescent development : Evidence of program effects. *Journal of Adolescence*, 17(4), 327-339.
- Harter, S.(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 Harter, S.(1988).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never.
- Hong, B. S. & Nam, M. A. (2004). *The youth welfare*. Seoul: Yangsuwon.
- Hong, S. H.(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Journal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2), 161-177.
- Hu, S. & Jung, T.(2010). The Effects of Volunteering on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Research*, 21(3), 143-164.
- Ichilov, O.(1990). *Dimensions and role patterns of citizenship in democracy*. In O. Ichilov(Ed.), Political socialization, citizenship, education, and democracy (pp. 11-24). New York: Teachers College.
- Jo, H. W. & Kim, Y. H.(2011). Effects of family functioning an adolescents' emotional autonomy &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6(3), 143-165.
- Jo, S. M.(2001). Relations of the bully-victim group and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in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 Jung, H. J.(2006). *The effect of Mother's and child's charcater an mother-child communication and peer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Korea.
- Kang, L. J., Palisano, R. J., Orin, M. N., Chiarello, L. A., King, G. A., Polansky, M. (2010). Determinants of social participation-with friends and others who are not family members-for youths with cerebral palsy. *Physical Therapy*, 90(12), 1743-1757.
- Kang, S. J.(2001).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volunteer activities and personality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 Kim, D. B.(2009). *Understanding of voluntary service*. Seoul: Hakjisa.
- Kim, E. J.(2007). An analysis of adolescence's peer relationship.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Collection of Dissertations*.

- Kim, H. M.(1999). *The influence of youth volunteer activity on the social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 thesis, Dong-A University, Korea.
- Kim, J. H.(1987). *Relations of perceived stress, cognitive set, and coping behaviors to dep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Kim, J. O.(2005). *The impact of volunteer service work on adolescents' Social Responsibility*. Unpublished master thesis, Daegu University, Korea.
- Kim, K. H.(2007). *The influences of high school students' volunteer activities on their self-este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Korea.
- Kim, S. S. & Ahn, J. J.(2012). The effects of adolescents' volunteer activities on their sense of community: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and peer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3(1), 339-363.
- Kim, Y. K.(2007). *A study on the democratic civil consciousness of adolescents: Focusing on Jeonbuk reg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Kunsan University, Korea.
- Kim, W. T.(2001). The effects of the experience in social participation on the citizenship in the high school.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33, 49-88.
- Klein, H. A.(1995). Self-perception in late adolescent: an interactive perspective. *Adolescence*, 30(119), 579-586.
- Ko, K. W. & Nam, J. Y.(2011). The effects of experiential activity in early adolescence on the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4), 231-250.
- Kwak, M. J. & Moon, S. Y.(2010). A study on impact factors of civil consciousness: Focusing on youths' participation to voluntary activities, career maturity, and stress. *Civil Society and NGO*, 8(2), 11-141.
- Lambert, S. F. M.(1999).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parents, teachers, and peers: Linkages with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Doctoral dissertation.
- Lausen, B., Furman, W., & Mooney, K. S.(2006). Predicting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worth from adolescent relationship and relationship networks: Variable-centered and personal-centered perspectives. *Merrill-Palmer Quarterly*, 52(3), 572.
- Lee, C. H.(2011). *Influence on the character of teenagers who execute volunteer activities*. Unpublished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Korea.
- Lee, E. H.(1999). A study on children's friendship. *Child Studies in Diverse Context*, 20(1), 77-95
- Lee, S. E.(2009). A longitudinal analysis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and adolescent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0(2), 313-335.
- Lee, S. H.(2004). *The relations between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school life adjustment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Lee, S. S.(2011). *Effects of parental conflict, children's anger, hostility, & physical aggression on the quality of friendship*. Unpublished master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 Lee, Y. K. & Lee, J. S.(2010). A path analysis of social participation activity of youth influencing on citizenship Mediation of social participation attitude, pro-sociality, and social trust. *Journal of Youth Research*, 17(2), 203-323.
- Lee, Y. S. & Lee, K. N.(2004). The individual variables,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al variables that affect victimization by peer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3(5), 659-672.
- Markus, G. B., Howard, P. E., & King, D. C.(1993). Interacting community service and classroom instruction enhances learning: results from an experi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15(4), 410-419.
- Minuchin(1985). Familied and individual development provocations from the field of family therapy. *Child Development*, 56, 289-302.
- Moon, S. H. & Moon, H. Y.(2009).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alities and effects of youth volunteer work.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1(1), 101-120.
- Oh, S. J.(2007). Relationship of volunteer work to ego identity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 Baekseok University, Korea.
- Olweus, D. (1993).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Hillsdale, 315-341.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oh, J. E.(2008). A study on the change of youth peer network. -The Experiences of group activity and the life competency.- Unpublished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Korea.
- Ross, A. (2007). 'Multiple identities and education for active citizenship'. *British Journal of Education Studies*, 55(3), 286.
- Ryu, J. M.(2005). *The effects of integrative arts therapy on the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perception with juvenile delinqu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WonKwang University, Korea.
- Smith, P. K. & Sharp, K.(1994). *School bullying insight and perspectives(Eds.)*. London: Routledge.
- Sudeen, R. A. & Raskoff, S. A.(2000). Ports of entry and obstacles: Teenager's access to volunteer activities. *Nonprofit Management & Leadership*, 11, 179-197.
- Yang, C. S.(1988). *Organizational Behavior*. Seoul: Daeyoungsa.
- Youniss, J. & Yates, M.(1999). Youth service and moral-civic identity: A case for everyday moralit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1, 361-376.
- Yu, A. J., Han, Y. J., & Kim, J. K.(2002). Aggression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in early adolescents. *Child Studies in Diverse Contexts*, 23(3), 223-238.
- Yu, Y. A.(2005). *The parenting styles and peer relationships of adolescents from broken family*. Unpublished master thesis, Dankook University, Korea.

| 접수일 : 2012. 06. 23.
 | 수정완료일 : 2012. 07. 17.
 | 게재확정일 : 2012. 08. 01.